

조합 자립기반 구축 · 건전결산 통한 농가 소득증대 매진

무 주농협 과동열 조합장이 농협의 조종간을 잡은 지 12(3년)대, 13(4), 14(5)대를 거치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코로나19 종식 비报复과 희망의 날갯짓을 기대하며 출발한 2022년 임인년(壬寅年)도 1달이 훌쩍 지나 올해는 과동열 조합장이 14대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무주농협은 조합의 자립기반을 더욱 확실히 구축하고 건전결산을 통해 농협·농가 소득증대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이 생산한 반딧불이 사과·시원머스켓 등 무주의 농산물을 베트남, 홍콩, 러시아·뿐만 아니라 수출국을 더욱 확장해 무주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의 농산물 수취기력 향상에도 더욱 전념할 예정이다.

이에 본보는 무주농협의 2021년도 각 사업 부문별 현황을 살펴본다.



▶ 과동열 조합장의 포부

“조합원 삶의 질 향상 위해 뚜벅뚜벅”

과동열 조합장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돼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 2020년 부실 대출로 조합원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용서 구해”

“지난 2020년 부실대출로 조합원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용서 구해”

“우리 조합의 출자금 잔액이 다른 조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으로 자기本身 증대에도 역주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구매 및 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뚜벅뚜벅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건전한

대출을 중심으로 신규대출을 증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검증으로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더불어 “구매 및 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뚜벅뚜벅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 긴행물, 보험, 재해지원사업 등에 3억8,200만원(전년대비 8,600만원 증가)의 실익 지원했다.

덧붙여 농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구현동농협과 공동으로 설립한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통합마케팅 상품화 비용으로 44억200만원(전년대비 37억6,300만원 증가)의 실익을 지원했다.

친환경유동사업단 지원센터에서는 기축분뇨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관내 농지의 지역 향상에 일조했으며, 양질의 1등급 퇴비를 생산, 공급하고자 현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생산하고 7~9월에는 관내 약 883ha(일반 775ha, 친환경 108ha)의 농지에 무인형공방제를 실시했다.

교육지원사업에도 농업인의 농업정보 수집 및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농민신문, 디지털농업 전원생활 등 긴행물제공을 일부 지원했으며,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의 학비 부담 절감을 위해 39명을 선정, 각각 70만원씩 총 2,700만원을 지원했다.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으로는 영농도우미(87농가, 6,800만원) 사업과 행복나눔이(65세 이상 가구 청소지원) 사업을 실시, 8월에는 무주계 이트볼 전용구장에서 관내 고령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제9회 무주농협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이 밖에도 매년 실시해 오던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시원나눔 목욕행사, 행복한 노래교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해 총자산 2565억원
당기순이익 14억1600만원

농업인 농작업 사고 대비
안전보험 추진 신규 가입 등
보험금 2억1800만원 지급

경제사업으로 구매 116억
판매 218억원 등 실적 거둬

구천동농협과 공동 설립
반딧불조합 사업법인 통해
통합마케팅 상품화 비용
44억200만원 실익 지원



▲ 무주농협이 판매하는 제품들



활짝 웃는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여
온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농협 구현



▲ 무주군 교육발전정책기금 기탁



◀ 범농협 임직원 농촌일손돕기



◀ 인성면 최고령 조합원 나눔 행사



◀ 대자인병원과 상호협력 협약